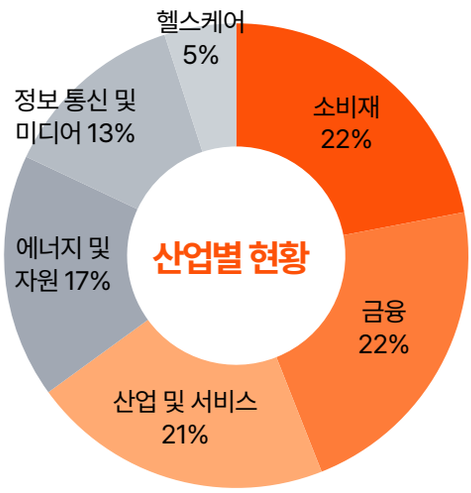
pwc 삼일회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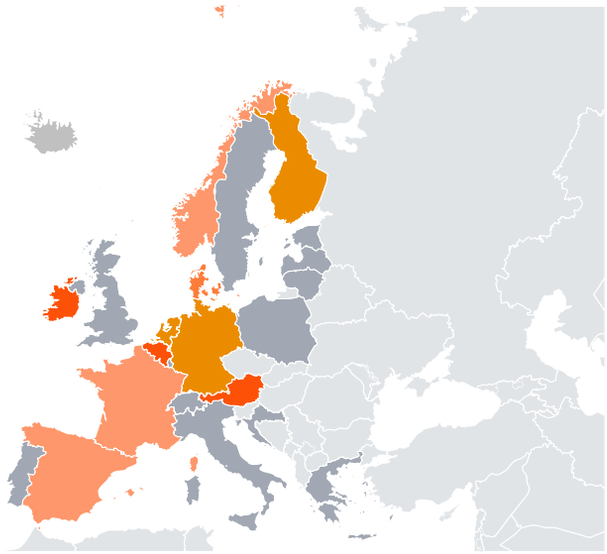
2025 EU 기업의 CSRD 보고 현황

2025년은 CSRD* 본격 시행과 함께 규제 체계가 재정비되는 과도기를 맞이한 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EU 기업들은 이에 맞춰 공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CSRD 기반 보고는 ESG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첫 공시 사례로서, 한국 기업들이 향후 ESG 정보 공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PwC는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EU 소재 250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했다. 이번 PwC 보고서는 산업별 공통된 패턴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속에서 기업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PwC는 유럽 22개국* 소재 25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AI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분포는 소비재(22%), 금융(22%), 산업 및 서비스(21%), 에너지 및 자원(17%), 정보통신 및 미디어(13%), 헬스케어(5%) 이다.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그리스, 덴마크

Table of Contents

00. Intro 03

01. 산업별 공시 주제 비교 04

02. 재무적 관점: 리스크 및 기회 공시 현황 11

03. 환경·사회적 관점: 긍정적 vs. 부정적 영향 14

04. 기후 리스크 중심의 공시 경향과 Scope 3 배출 항목 분석 17

05. 주목할 사항: 사이버 보안, AI, 세금 및 기타 개별 공시 19

06. 공시 인증 현황 20

07. 분석의 결론 및 국내 기업 시사점 21

Intro

유럽연합(EU) 소재 기업들이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주춤했던 공시 흐름은 점차 뚜렷한 확산세로 이어지고 있다. CSRD는 기업이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곧 기업의 가치 창출과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이제 경영진이 주목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투자자 역시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PwC의 2024년 글로벌 투자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에 직접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월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에 따라 일부 세부 규정은 여전히 변화 가능성이 있지만, '이중 중요성' (Double Materiality)과 같은 핵심 프레임워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 기업들은 어떤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 그리고 환경 · 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고 있는가?
- 산업 내외에서 어떤 공통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가?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 PwC는 AI 기반 분석 도구와 내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총 250개의 CSRD 보고서를 분석했다. 이 중 70% 이상은 유럽 5개국에 소재한 기업의 보고서였으며, 그 중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는 아직 CSRD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자발적 보고를 선택한 것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전략적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새로운 보고 체계에 적응 중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10개 미만의 영향 · 리스크 · 기회(IROs)를 보고한 반면, 120개 이상을 공개한 기업도 있었다. 물론 IRO 수가 많다고 해서 보고서의 품질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기업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모범 사례가 공유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구체화됨에 따라 보고의 일관성과 품질은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01

산업별 공시 주제 비교

CSRD를 이행하기 위한 공시 기준인 ESRS*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반에 걸친 10개의 주제별 기준을 포함한다. 기후변화(E1), 임직원(S1), 비즈니스 수행(G1)은 대부분의 기업이 공시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핵심 주제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 기업들은 관련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했다.

기후변화 관련 공시가 없었던 기업은 단 두 곳(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뿐이었으며, 해당 주제가 자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반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46%), 오염(42%), 수자원 및 해양 자원(36%), 지역사회(31%)는 상대적으로 공시 비중이 낮았다. 이는 PwC가 2024년 실시한 글로벌 CSRD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하며, 기업들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제가 공시 내용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업종에서는 생물다양성(9%), 수자원(6%), 오염(3%) 관련 공시가 드물었으나, '산업 및 서비스' 업종에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해당 주제에 대해 최소 하나 이상의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공시했다.

공시 기준에서 정의한 지속가능성 하위 주제와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소비재(59%)', '에너지 및 자원(57%)', '산업 및 서비스(55%)' 업종의 절반 이상이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공시를 진행했다. 반면, 금융업에서는 해당 주제를 공시한 기업이 9%에 불과했다.

'정보통신 및 미디어' 기업이 환경 오염 문제를, 금융 서비스 기업이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공시하는 사례처럼, 업종의 일반적인 공시 관행과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들도 존재한다. 이는 세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먼저, 각 기업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특성, 운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둘째, 공시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이 간과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들이 단순히 '특이한' 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준 하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사들의 CSRD 공시를 면밀히 살펴보면,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마다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산업 내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산업별 주제 선정에 큰 차이를 보임

1-1. ESRS 10대 주제별 공시 현황

각 주제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기후 변화	100%	100%	100%	100%	98%	97%
환경오염	55%	64%	11%	77%	58%	0%
수자원 및 해양자원	46%	52%	15%	62%	45%	9%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54%	64%	37%	54%	51%	9%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84%	71%	33%	92%	83%	53%
임직원	98%	100%	96%	100%	100%	100%
가치사슬 내 근로자	79%	81%	35%	85%	74%	56%
지역 사회	29%	55%	22%	23%	36%	16%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70%	26%	80%	77%	42%	66%
비즈니스 수행방식	82%	82%	93%	100%	92%	94%

1-2. 기후 변화

ESRS E1 기후 변화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기후 변화 적응	46%	48%	44%	38%	51%	38%
기후 변화 완화	64%	64%	52%	46%	72%	62%
에너지	61%	64%	28%	46%	60%	56%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산업별 주제 선정에 큰 차이를 보임

1-3. 환경오염

ESRS E2 환경오염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미세플라스틱	9%	5%	2%	0%	11%
대기 오염	27%	38%	4%	8%	30%
생물 및 식량 자원의 오염	24%	0%	0%	0%	0%
토양 오염	20%	17%	0%	8%	17%
수질 오염	21%	24%	4%	15%	21%
우려 물질	13%	19%	0%	23%	21%
고위험 우려 물질	7%	7%	2%	15%	15%

1-4. 수자원 및 해양자원

ESRS E3 수자원 및 해양자원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해양자원	5%	0%	2%	0%	0%	0%
수자원	86%	19%	6%	15%	17%	0%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산업별 주제 선정에 큰 차이를 보임

1-5.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인 영향 유발 요인	16%	17%	6%	0%	21%	3%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영향 및 의존도	18%	12%	7%	0%	13%	0%
생태계의 범위 및 상태에 대한 영향	14%	24%	7%	0%	11%	0%
종의 상태에 대한 영향	7%	21%	4%	15%	8%	3%

1-6.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ESRS E5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자원 유출	48%	26%	9%	15%	45%	22%
자원 사용을 포함한 자원 유입	52%	40%	15%	23%	51%	31%
폐기물	46%	40%	6%	46%	47%	25%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산업별 주제 선정에 큰 차이를 보임

1-7. 임직원

ESRS S1 임직원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	34%	33%	33%	23%	36%	28%
기타 업무 관련 권리	7%	10%	6%	0%	13%	3%
근무 조건	32%	26%	39%	23%	42%	41%

1-8. 가치사슬 내 근로자

ESRS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	11%	10%	2%	15%	15%	9%
기타 업무 관련 권리	11%	24%	6%	0%	17%	16%
근무 조건	25%	31%	9%	8%	26%	22%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산업별 주제 선정에 큰 차이를 보임

1-9. 지역 사회

ESRS S3 지역 사회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지역사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5%	5%	2%	0%	9%	0%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16%	24%	6%	0%	17%	3%
원주민의 권리	5%	12%	2%	0%	11%	3%

1-10.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 관련 영향	14%	7%	24%	0%	4%	22%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개인 안전	25%	0%	11%	15%	11%	9%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사회적 포용	13%	7%	28%	23%	2%	19%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산업별 주제 선정에 큰 차이를 보임

1-11. 비즈니스 수행방식

ESRS G1 비즈니스 수행방식 관련 중대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개한 기업의 비율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동물복지	11%	0%	0%	38%	0%	0%
기업문화	45%	45%	43%	46%	58%	69%
부패 및 뇌물	34%	19%	30%	46%	36%	44%
지급 관행을 포함한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34%	29%	19%	15%	32%	22%
정치적 참여 및 로비 활동	14%	21%	6%	15%	15%	9%
내부 고발자 보호	32%	31%	19%	31%	42%	41%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02

재무적 관점: 리스크 및 기회 공시 현황

CSRD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각각 리스크와 기회로 구분해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지속가능성 보고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가치 보호와 창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영진과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실제 공시 내용을 단순 집계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가 기회보다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나 에너지 전환과 같은 주제에서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응, 환경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객 수요 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일부 대기업이 기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다.

기업들이 인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 현황

2-1. 각 ESRS 주제에 대해 산업별로 공시된 실질적인 리스크의 평균 수치

평균값 1 미만은 해당 리스크를 공시한 기업이 적음을 의미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기후 변화	2.8	2.8	2.4	1.5	2.5	1.4
환경오염	0.7	1	1.5	1	1.3	0
수자원 및 해양자원	1	0.5	1.5	0.3	0.7	0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1.6	0.9	0.9	0.3	0.6	0.7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1	0.5	0.8	0.7	1.1	0.9
임직원	1.5	1.6	1.1	1.5	2.2	1.4
가치사슬 내 근로자	1.3	0.7	1.1	0.8	1.2	0.9
지역 사회	0.6	0.6	0.3	0	0.7	0.8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1.8	0.4	1.5	2.3	1.1	1
비즈니스 수행방식	1.7	1.2	1.7	1.2	1.6	1.3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기업들이 인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 현황

2-2. 각 ESRS 주제에 대해 산업별로 공시된 실질적인 기회의 평균 수치

평균값 1 미만은 해당 기회를 공시한 기업이 적음을 의미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기후 변화	1.1	1.7	1.6	0.8	1.9	1.1
환경오염	0.3	0.3	0.2	0.1	0.2	0
수자원 및 해양자원	0.2	0.2	0	0.3	0.4	0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0.6	0.3	0.3	0.1	0.5	0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0.8	0.7	0.7	0.3	1	0.6
임직원	0.9	1.2	0.9	0.8	1.1	1
가치사슬 내 근로자	0.4	0.2	0.6	0	0.3	0.1
지역 사회	0.3	0.2	0.3	0	0.5	0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0.5	0.6	0.7	0.8	0.4	0.7
비즈니스 수행방식	0.7	0.8	0.5	0.6	0.7	0.7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03

환경 · 사회적 관점: 긍정적 vs. 부정적 영향

CSRD는 기업의 직접 통제 범위를 넘어 가치사슬 전반에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도 있다.

25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47% 더 많이 공시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금융업이 전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공시한 유일한 업종이었다.

한편, 일부 대기업은 긍정적 영향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이러한 공시 패턴은 점차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나 기회는 함께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업 문화, 로비 활동,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비즈니스 수행방식 관련 영향이 300건 이상, 기후 변화 관련 영향이 180건 이상 공시됐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리스크나 기회와 연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시 방식은 ISSB*의 IFRS S1&S2*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ISSB의 IFRS S1 & S2 기준에서는 리스크 또는 기회로 연결되지 않는 영향은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향을 식별했더라도, 그에 따른 리스크나 기회를 함께 식별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은 ISSB 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다. 향후 기업이 IFRS S1&S2 기준에 따라 보고하고,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향을 넘어서 리스크 또는 기회로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식별해야 한다.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전 세계 146개국이 도입한 회계기준을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의 산하 기관

* IFRS S1&S2: I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며,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일반요구 사항, S2는 기후 관련 공시 내용으로 구성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공시 현황

3-1. 각 ESRS 주제에 대해 산업별로 공시된 부정적인 영향의 평균 수치

평균값 1 미만은 부정적인 영향을 공시한 기업이 적음을 의미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기후 변화	2.2	2.3	2.0	2.8	2.5	2.1
환경오염	2.0	2.9	1.8	2.9	2.5	0.0
수자원 및 해양자원	1.7	1.8	1.3	1.3	1.3	1.0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2.4	3.5	1.5	1.4	2.6	1.7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2.0	1.9	1.4	1.8	2.0	1.7
임직원	2.2	2.7	1.3	3.2	3.5	1.8
가치사슬 내 근로자	2.6	2.6	1.9	4.1	2.9	2.8
지역 사회	1.8	2.0	0.9	1.7	2.0	0.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1.3	0.8	1.4	2.6	1.0	1.0
비즈니스 수행방식	1.2	0.9	1.1	1.2	1.3	0.7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사람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영향 공시 현황

3-2. 각 ESRS 주제에 대해 산업별로 공시된 긍정적인 영향의 평균 수치

평균값 1 미만은 긍정적인 영향을 공시한 기업이 적음을 의미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기후 변화	0.9	1.5	1.5	0.9	1.4	0.8
환경오염	0.1	0.4	0.2	0.1	0.2	0
수자원 및 해양자원	0.4	0.3	0	0.5	0.5	0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0.3	0.6	0.3	0.1	0.6	0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	0.8	0.6	0.9	0.3	1.1	0.6
임직원	2.9	3.2	2.3	2.7	2.9	2.9
가치사슬 내 근로자	0.7	1	1.5	0.3	0.9	0.4
지역 사회	0.8	1.2	2	0	0.7	1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1.3	1.9	1.8	3.9	0.9	1.7
비즈니스 수행방식	1.6	1.7	1.7	1.9	1.5	1.2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04

기후 리스크 중심의 공시 경향과 Scope 3 배출 항목 분석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공시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회보다 리스크를 더 많이 공시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중 약 70%는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목표를 공시했다. 하지만 에너지 및 자원, 산업 및 서비스 업종에서는 절반 정도만이 이러한 목표를 공개했다.

전체 기업의 약 4분의 3이 기후 전환 계획을 공시했지만, 금융 업종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금융 기업들은 전환 계획이 아직 수립 중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대출 및 투자 활동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 감축 조치에 초점을 맞춘 공시가 많았다.

Scope 3 배출 관련 공시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출장, 연료 및 에너지 사용, 제품 서비스 및 구매와 관련된 배출을 포함했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항목이 있는 반면, 산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공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금융 업종에서는 약 75%의 기업이 투자와 관련된 배출을 공시한 반면,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단 15%만이 이에 대해 공시했다.

산업별 Scope 3 배출 공시 비율 현황

GHG 프로토콜 기준 Scope 3 공시 현황 (분석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준)

	소비재 (56개사)	에너지 및 자원 (42개사)	금융 (54개사)	헬스케어 (13개사)	산업 및 서비스 (53개사)	정보 통신 및 미디어 (32개사)
출장	77%	83%	78%	100%	85%	97%
자본재 구매	73%	78%	48%	69%	68%	75%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센터 서비스	0%	0%	11%	0%	9%	22%
다운스트림 임대 자산	20%	21%	26%	23%	19%	19%
다운스트림 운송 및 물류	48%	57%	17%	38%	38%	31%
임직원 출퇴근	66%	71%	63%	85%	72%	84%
판매 제품 폐기	52%	43%	9%	69%	49%	41%
가맹점	20%	5%	4%	8%	11%	6%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80%	90%	52%	85%	83%	59%
투자	25%	48%	74%	15%	34%	31%
판매 제품 공정	9%	26%	4%	8%	11%	3%
제품 및 서비스 구매	98%	98%	76%	100%	96%	97%
업스트림 임대 자산	21%	29%	6%	31%	19%	31%
업스트림 운송 및 물류	88%	69%	31%	100%	77%	53%
판매 제품 사용	59%	57%	9%	23%	72%	66%
작업 중 발생 폐기물	70%	69%	57%	85%	66%	53%

기준 = 250개의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참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출처: PwC 분석

05

주목할 사항: 사이버 보안, AI, 세금 및 기타 개별 공시

ESRS의 10개 주제별 기준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영향, 리스크 또는 기회를 식별한 경우, 기업은 이를 개별 공시 형태로 보고해야 한다.

검토한 250개 보고서 중 약 20%의 기업이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별 공시를 포함했다.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투자자 설문조사에서는 약 36%가 향후 1년 내 기업들이 사이버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2%는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대부분은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강조하거나, AI를 비즈니스 기회 또는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다뤘다. 일부 기업은 AI를 리스크 요인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사회적 영향으로 언급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8%는 혁신을 긍정적 영향 또는 사업 기회로 공시했다. 일부는 혁신을 통해 제품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된 사례를 소개했고, 일부는 연구개발(R&D) 투자로 인한 사회적 기여를 강조했다.

세금 관련 공시는 전체의 약 5%에서 확인됐다. 일부는 거버넌스 항목으로, 일부는 개별 공시로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세금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 납부한 전체 세금 금액, 기타 세금 관련 이슈 등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EU의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국가별 세금 보고(CbCR)*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선제적으로 포함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Country-by-Country Reporting: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 납부한 세금, 고용 인원, 자산 등의 정보를 국가별로 나눠서 보고하는 제도

06

공시 인증 현황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해 제한적 수준의 인증을 요구한다. 일부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임직원 관련 데이터 등 특정 항목에 대해 합리적 인증을 선택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한 곳은 전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해 합리적 인증을 적용했다.

검토한 보고서 중 인증 전문가로부터 한정 의견(Qualified Opinion)*을 받은 사례는 소수였으나, 대다수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인증 관련 주의 문단이 포함되어 있다:

- 강조사항(Emphasis of Matter)
- 기타사항(Other Matter)
- 고유한계(Inherent Limitation)

인증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주목했다:

- 일부 정량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거나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
- 기업 간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 비교의 어려움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 과정의 복잡성

이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 인증 전문가가 보고서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제한이 있어 신뢰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의견

07

분석의 결론 및 국내 기업 시사점

1 보고 수준의 격차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 간 지속가능성 보고 준비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보고를 이제 막 시작한 반면, 다른 기업은 이미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공시의 품질과 범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CSRD가 아직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기업별 대응 수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력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격차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도 CSRD 기 보고가 ESG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첫 보고 사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사에 맞는 공시 체계를 구축해 이를 경영 전략에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공시 역량을 함께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가능성 보고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CSRD의 성공 여부는 투자자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기업 리더들이 보고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경영 의사결정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공급망 재편, 세무 전략 수립 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다.

검토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분석 대상 기업의 80%가 연차보고서의 리스크 항목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재무적·운영상 리스크와 함께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점차 리스크, 수익, 가치 창출에 관한 핵심 경영 논의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SRD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보고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전반에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향후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공급망 재편, 세무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고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도 지속가능성 보고를 단순한 공시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산업별 특성과 자사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공시 체계 구축

국내 기업은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과 자사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럽 기업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후변화, 임직원, 거버넌스 등 공통 이슈를 다루면서도 산업별 특성과 사업 환경에 따라 공시 주제의 우선순위가 달랐다.

특히 일부 기업은 업종의 일반적 관행을 넘어,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세금, 혁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선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 기업도 유럽 선도 기업의 보고서를 벤치마킹하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사 산업군의 리스크 · 기회 구조와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반영한 전략적 공시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CSRD의 ESRS 기준뿐 아니라 ISSB의 IFRS S1 및 S2 기준도 함께 고려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공시 체계는 기업이 어떤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현재는 비주류로 여겨질 수 있는 주제라도 자사에 중요한 이슈라면 선제적으로 공시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규제 현황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개 제도인 CSRD 발표 후, 같은 해 7월 말 공시기준(ESRS)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한편, EU는 올해 초부터 기존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을 보였다.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개정안을 발표했고, 지난 4월 17일 공시 일정 일부 연기 및 공시 정보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시 정지(Stop the Clock)' 지침이 공식 발효됐다.

참고1 EU 옴니버스 패키지 초안에 따른 공시 일정 변경안 발표 (25년 2월 26일)

구분	현 CSRD		EU 옴니버스 패키지	
	시기	규모	시기 ('Stop the clock' Proposal)	규모 ('Content' Proposal)
Wave 1 (상장사)	2024년 정보 2025년 공시	• 임직원 500명 초과, • 순매출 €50M 초과, • 총자산 €25M 초과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4년 정보 2025년 공시	• 임직원 1000명 초과 & • 순매출 €50M 초과 또는 총자산 €25M 초과
Wave 2 (비상장)	2025년 정보 2026년 공시	• 임직원 250명 초과, • 순매출 €50M 초과, • 총자산 €25M 초과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7년 정보 2028년 공시	
Wave 3 (상장 중소 및 소규모 금융)	2026년 정보 2027년 공시	• 임직원 10명 이상 250명 이하 • 순매출 €50M 초과 • 총자산 €25M 초과 (3개중 2개 기준 충족)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Wave 4 (Non-EU 모기업)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 CSRD 적용대상 EU 종속기업 또는 사무소(순매출 €40M 초과) 보유 & EU 역내 순매출 €150M 초과	2028년 정보 2029년 공시	• 회계 지침 상 대규모* EU 종속기업 또는 사무소(순매출 €50M 초과) 보유 & EU 역내 순매출 €450M 초과

* 회계 지침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23/2775 Article 1(4))상 정의된 대규모 기업 정의: 다음 셋 중 둘 이상 (임직원 250명, 순매출 €50M, 자산 €25M 초과)

Contacts

Sustainability Platform

스티븐 강 Partner
Sustainability Platform Leader, PwC Korea
Steven.c.kang@pwc.com | 02 709 4788

Sustainability Reporting & Assurance

권미엽 Partner
Assurance, PwC Korea
miyop.kwon@pwc.com | 02 709 7938

김도연 Partner
Assurance, PwC Korea
kim.doyeon@pwc.com | 02 709 4079

심재경 Partner
Assurance, PwC Korea
jea-kyoung.shim@pwc.com | 02 709 7083

정우진 Partner
Assurance, PwC Korea
woojin.jung@pwc.com | 02-3781-1741

김한내 Partner
Assurance, PwC Korea
han-nae.kim@pwc.com | 02-709-8797

이혜민 Partner
Tax, PwC Korea
hye-min.lee@pwc.com | 02-3781-1732

Sustainability Advisory

이진규 Partner
Assurance, PwC Korea
jin-kyu.lee@pwc.com | 02 3781 9105

박경상 Partner
Assurance, PwC Korea
kyoungsang.park@pwc.com | 02 3781 0029

이보화 Partner
Assurance, PwC Korea
bo-hwa.lee@pwc.com | 02 3781 0124

소주현 Partner
Tax, PwC Korea
so.juhyun@pwc.com | 02 3781 0124

곽윤구 Partner
Deals, PwC Korea
yun-goo.kwak@pwc.com | 02 3781 2501

Contacts

Energy Transition

임지산 Partner
Assurance, PwC Korea
ji-san.ym@pwc.com | 02-3781-9236

김홍현 Partner
Tax, PwC Korea
hong-hyeon.kim@pwc.com | 02 3781 0124

한정탁 Partner
Deals, PwC Korea
jungtak.han@pwc.com | 02 3781 0124

서용태 Partner
Deals, PwC Korea
yong-tae.seo@pwc.com | 02 3781 0124

김병일 Partner
Public, PwC Korea
byoung-il.kim@pwc.com | 02 3781 0124

이정규 Partner
Public, PwC Korea
jake.lee@pwc.com | 02-3781-0129

유옥동 Partner
Public, PwC Korea
ok-dong.yu@pwc.com | 02-3781-0128

Platform Team

윤이나 Manager
ena.yun@pwc.com | 02-709-8530

박나영 Senior Associate
nayoung.park@pwc.com | 02-709-6411

양하정 Assistant Associate
hajung.yang@pwc.com

pwc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6A-RP-069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